

일본 요괴문화 속의 요괴 이야기의 궤적과 그 의미*

- 슈텐동자(酒呑童子) 이야기를 통하여 -

박희영**
hyp0723@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일본에서의 요괴 이야기의 궤적 |
| 2. 일본인과 요괴-공존해온 그들의 문화사 | -요괴 슈텐동자 이야기 |
| 3. 현실공간 속의 일본인과 이계(異界)의 요괴 | 5. 나가며 |
| -경계를 넘어서 | |

主題語: 일본요괴(Japanese Yokai), 슈텐동자(Syutenndouzi), 일본문화(Japanese Culture), 이계(Different Space), 전승(Transmission)

1. 들어가며

슈텐동자(酒呑童子)¹⁾의 퇴치를 명하였던 이치쥬(一条)천황 시대의 사료를 찾아보게 되면 슈텐동자라는 요괴를 퇴치했다는 기록은 물론이고, 슈텐동자라는 이름조차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즉 슈텐동자는 허구의 인물이고 슈텐동자 퇴치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닌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이다. 물론 본고에서 슈텐동자라는 요괴의 존재의 유무를 새삼스럽게 고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존재의 유무를 떠나서 현재도 여전히 일본인들과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고 있는 슈텐동자라는 요괴와 그 이야기가 가지는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에서 30여년간 지속되어온 요괴문화 붐 속에서 요괴문화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와 의미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6A3A02033580)

**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일본문화학 전공

1) 슈텐동자(酒呑童子)는 다른 통칭으로서 주전동자(酒顛童子), 주천동자(酒天童子), 주점동자(朱点童子)라고 쓰기도 하는 요괴로 오토기조시(御伽草子)안에서 다마모마에(玉藻前), 오다케마루(大嶽丸)와 더불어 무서운 3대 요괴 중의 하나이다. 乾克巳編(1986)『日本伝奇伝説大辞典』角川書店, pp.455-456

는 상당하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일본의 요괴문화 속에서 슈텐동자라는 존재가 가지는 이미지와 그 속에서 창출된 상상의 파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무게감이 어떠한 것일까?

일반적인 수준에서 슈텐동자에 대한 이미지와 상상의 근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 그 의미를 찾게 되면 단순한 ‘무시무시한 3대 요괴 가운데 하나’ 정도의 논의의 수준에서 그칠 수 없다는 것을 금세 인식하게 된다. 즉 일본 요괴문화 속에 담겨져 있는 슈텐동자의 오래기간 축적된 사회적 역사적 산물로서의 이미지의 변천과정과 그 의미가 표증하는 다양성²⁾을 가늠해 볼 때, 이를 수많은 요괴군 속의 하나로 간과하고 넘어가기에는 그 존재가 창출해온 가치와 깊이는 우리의 상상의 경계를 뛰어넘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오랜 기간을 통하여 획득된 슈텐동자의 문화콘텐츠적 성격과 가치는 본래 요괴가 지니고 있는 요괴성을 새로운 형태로 변모시키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요괴는 말 그대로 요사스럽고 괴상하고 기이한 존재를 뜻하는 단어이다.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비밀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존재인 요괴는 사람들에게 인식의 범위를 뛰어 넘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존재로서 오랜 기간 동안 자리매김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요괴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친숙한 존재로 일상적으로 다가 오고 있는 요즘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비밀상적 존재가 빠른 속도로 일상적 존재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고 느낄 만큼, 차츰 요괴는 우리들 앞에 베일을 벗으며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현대인들의 심상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이러한 기이한 요괴문화 현상이 벌어지게 된 데는 과연 어떠한 배경과 과정이 있었고, 그것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³⁾ 이러한 흐름을 쫓아가 보면 요괴를 통하여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들의 근원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2) 고마쓰 가즈히코(小松和彦)에 따르면 “슈텐동자 이야기는 남북조(南北朝)시대 경부터 하나의 패턴화된 이야기로 정착되어 가서, 그것에 기반으로 파생된 이야기가 창작되면서 에마키(繪卷)에 그려지거나 노(能)의 소재가 되거나 가부키(歌舞伎)나 인형조루리(人形浄瑠璃)가 되거나 또는 우키요에(浮世絵)의 소재가 되어 사람들에게 전승되어져 갔다. 오늘날도 영화나 소설 코믹북 등 속에서 그 스토리나 이름이나 캐릭터가 등이 크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슈텐동자의 일본 역사 일본의 문화사 속에서의 역할은 정말로 상당하여 슈텐동자 설화를 그린 가장 오래된 에마키(繪卷)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높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小松和彦(2013)『日本妖怪異聞録』講談社, pp.12-13

3)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단순한 즐거움과 흥미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닌, 좀 더 깊이 있고 본질을 꿰뚫을 수 있는 ‘일본 괴담과 요괴문화의 근원적인 이해’가 선행되기 위해서는 요괴문화의 원형이 되는 일본 괴기, 괴담물을 통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문학의 문화화, 즉 괴담문학에서 요괴문화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요괴문화의 기층이 되는 일본 괴기, 괴담물의 구조와 그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과 이류들의 교류양식을 면밀히 살펴보고 논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 여겨진다.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편(2013)『동아시아 교류와 문화변용』박문사, pp.83-85 참조

그 면면들이 만들어낸 시대적 의미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함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인들의 삶의 기층 속에서 왜 이러한 수많은 요괴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어떠한 논리로 생성될 수 있었으며, 또한 일본인들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관계를 맺어오며 함께 살아올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슈텐동자의 생성과 근원과 관련된 다양한 그들의 전승방식과 이미지의 양상, 그리고 그 속에서 파생되는 이야기들은 일본인들의 삶의 궤적과 더불어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그 속에서 인식되는 슈텐동자의 이야기 구조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의 요괴 중에서도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추상적인 인식에 그치고 있는 슈텐동자를 통하여 그의 궤적과 그의 이야기를 재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다.⁴⁾

따라서 먼저 본고에서는 과거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일본 요괴 이미지에 대한 연원과 근거, 그리고 시대별 그리고 문화사적 흐름을 통하여 요괴이미지의 현재까지 이어지는 표상을 살펴 보고 이어서 슈텐동자와 관련된 이야기와 다양한 이설, 이미지의 축적과정을 집중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즉 슈텐동자에 대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다양한 이미지의 원형을 살펴보고 재정립하여, 이를 통하여 발생하는 주된 논점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함의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2. 일본인과 요괴 – 공존해온 그들의 문화사

최근 현대 일본문화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다양한 일본문화 코드들 속에서 요괴문화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반증으로 피기, 괴담문화 열풍과 그에 수반되는 30여 년간의 지속적인 요괴문화 붐은 그것에 대한 좋은 실례

4) 일본에서는 슈텐동자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흐름이 존재한다. 이용미에 따르면 중세를 대표하는 요괴인 만큼 슈텐동자의 위상 내지 정체성에 대하여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는데, 일본에서의 대표적인 논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먼저 가장 보편적인 시각은 왕권(王權) 설화의 입장에서 슈텐동자를 왕권을 위협하는 사회악의 형상화로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도권에서 소외되어 주변인으로 머무는 수밖에 없는 계층의 삶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시각, 그리고 사회 공동체를 붕괴시킬 만큼 위세를 떨친 무서운 전염병의 유행과 이에 대한 대항의 기억으로 정의하는 연구 등이 있다. 그 밖에도 슈텐 동자 설화의 성립과 관리 주체에 관해서는 산악 수행인 슈켄도(修験道)를 실천하는 무리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한국에서의 슈텐동자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인데 이에 이용미는 슈텐 동자의 태동기를 중심으로 요괴성의 근원 및 그 당위에 주목하여 슈텐동자의 시원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이용미(2012)「슈텐동자(酒呑童子)」의 시원에 관한 소고-오토기조시『伊吹童子』, 『酒呑童子』를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22권, pp.634-635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요괴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가면서 각지에서 요괴관련 특별 행사 및 기획전이 기획되고 열리면서, 요괴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점점 증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영상 미디어를 통하여 요괴 캐릭터가 대거 출현하는 등 문화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와 문화산업적 측면에서의 가치 및 활용도가 무궁무진하게 그 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즐겨보는 문학작품,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부터 그리고 각종 캐릭터 상품과 광고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문화콘텐츠들이 요괴문화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⁵⁾ 이처럼 일본의 문화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일본의 요괴문화현상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대 일본대중문화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붐이나 열풍정도의 의미해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요괴문화의 기층과 그 근저에 흐르는 일본의 전통적인 요괴문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다양한 각도에서의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세계와 이계(異界)의 존재인 요괴들이 거주하는 이공간(異空間) 사이에는 수많은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고 여겨져 왔다. 일본인들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설정된 경계 속에서 사람들은 끝없이 현실공간의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한 이공간의 모습들을 상상하고 그려보면서 둘 사이의 경계를 인식하려고 하였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이공간에 대하여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하며 경계 저편의 존재들인 요괴를 두려워하기도 때로는 경외시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나아갔다.

일반적으로 일본인들에게 요괴들은 시대별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인식 속에서 각인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신처럼 떠받들며 모셔야 할 경외와 숭배의 대상으로, 중세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에게 공포와 위협이 되는 이계의 존재로서 퇴치되어야 할 것으로, 근세에 이르러서는 이전의 두려운 존재가 아닌 웃음과 해학을 던져주는 익살스러운 존재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대에 이르러서는 근대화된 서양 과학문물과 사상의 유입으로 인하여 철저히 배제되고 퇴치되어 인식의 범주 속에서 사라져야 할 의미 없는 존재로서 생각되어 왔다.⁶⁾

요괴와 관련하여 고대 일본인들의 상상력과 환상의 근원은 요괴라는 존재와 이계라는 환상의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던 신화와 전설 속 이야기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일본은 고대부터 다양한 괴기, 괴담이 두터운 층을 이루며 그 명맥을 이어 왔다. 『고사기(古事記)』와 『일본서기(日本書記)』, 『겐지이야기(源氏物語)』 등에 등장하는 오니(鬼)와 모노노케

5) 중앙대학교 한일문화연구원 편(2005)『일본의 요괴문화』한누리미디어, pp.304-305

6) 박희영(2013b)『일본 요괴문화 속 여성 요괴의 생성과 이중성의 구조설녀(雪女), 우부메(産女), 야만바(山姥)』『일본근대학연구』제42집, p.296

(もののけ)는 당시의 대표적인 요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들의 정령신앙에 기반을 둔 이들은 당시만 해도 구체적인 형태를 지닌 존재라고 볼 수 없었지만, 이때부터 요괴는 경외와 숭배를 동반한 그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자연스럽게 태동하며 고대 일본인들은 이들을 위한 주술이나 의식을 행하기 시작하였다. 고대 일본에서 전승되어 온 괴기, 괴담 그리고 요괴문화는 이후 각 시대와 지역사회의 특징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계승되고 한편으로는 변화해 가게 된다. 그러한 와중에 이야기를 파생시키고 전달해 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자신들의 이야기와 자신들이 소속된 공간,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구현해 나가면서 그 의미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이다.

중세에 이르러 요괴문화는 인간 심연의 공포와 불안의 근원이라 여겨졌던 형체를 알 수 없었던 요괴들에서 구체적인 형체를 통하여 그 실체를 드러내는 존재로 탈바꿈해 가게 된다. 음양사와 무장들의 활약으로 퇴치되었다는 요괴이야기와 사람들이 사용하던 도구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요괴로 둔갑한 쓰쿠모가미(付喪神)라 불리는 사물요괴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그림이 곁들여지면서 이들 요괴이야기가 당시 주류를 이루게 된다. 당시에 유명한 음양사(陰陽師)로서 아베노 세이메이(安倍晴明)가 있는데 그의 활약은 기록으로 전해져 현대에도 많은 형태의 다양한 음양사 관련 콘텐츠를 파생시키고 있다.

근세에 이르러 일본의 요괴문화는 크게 변모하기 시작한다. 당시 조닌(町人)이라는 부를 축적한 문화의 향수 계층의 등장은 대중적인 오락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경향과 부합하며 결정적으로 근세의 요괴문화는 오락화 되어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에도시대의 조닌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그 동안의 알고 있었던 요괴가 가공의 존재임을 차츰 인식하게 되었고, 아직 두려운 존재이기는 하지만 요괴를 오락과 유희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의 일본인들이 요괴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창작하여 그 개체수를 무한정으로 늘리는 하는 계기를 만들게 된다. 또한 미술, 출판, 인쇄술 등의 비약적인 발달은 요괴화집의 대량출판을 가능하게 하였는데, 당시에 출간된 수많은 요괴화집 중에서 도리야마 세키엔(鳥山石燕)의 『화도백귀야행(画図百鬼夜行)』은 가장 유명하다. 이 시대는 이른바 요괴문화의 황금기라 불러도 손색이 없었던 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근대에 들어서면서 서양의 과학적 사고에 기초한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점차 확산되면서 요괴는 비상식적인 상상의 산물로써 일본인들에게 퇴치되고 배척되어야 할 존재로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급속한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공고롭게도 요괴라는 단어가 학술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그 동안 학문적인 연구대상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요괴가 ‘요괴학’이라는 학문 영역으로 출현하기 시작하였던 시기기도 하였다. 일본에서 요괴가 학문적 연구대상이 된 것은 1887년 철학자 이노우에 엔료(井上円了)가 학술용어로서 의식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시초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요괴는 일반적인 사고로는 해석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현상으로 인간의 공상의 산물로서 생각하여, 어디까지나 이 당시의 요괴학은 근대의 과학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박멸해야 할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요괴문화가 현대에 이르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며 또 다른 형태로 재생산, 재창조되기 시작한다. 1970년을 전후한 시기에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의 <게게게 鬼太郎>를 필두로 1차 요괴 붐이 서서히 일기 시작하였다. 이후 2차 요괴 붐이라 할 수 있는 1980년대에 이르러 미야자키 하야오(宮崎駿)의 「이웃집 도토로(となりのトトロ)」, 「원령공주(もののけ姫)」,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千と千尋の神隠し)」 등의 일련의 애니메이션 작품과 교코쿠 나쓰히코(京極夏彦)의 『우부메의 여름(姑獲鳥の夏)』을 비롯한 다수의 괴담소설 등 대중문화적인 작품을 통해서 요괴문화 열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최근의 20-30년 사이에 활성화 된 요괴문화 붐으로 인하여,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즐겨보는 문학작품,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연극에서 그리고 각종 캐릭터 상품과 그로 인한 광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물들이 요괴문화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대량으로 생산, 소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의 요괴문화 붐이 가져온 산업적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할 수 있는데,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판타지 영화, 관광, 그리고 키홀더나 머그컵 등의 소품에서 수백 종의 요괴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본문화 콘텐츠 속에서 요괴문화의 자취와 그 흔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하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의 이러한 요괴문화 붐과 관련된 흐름과 열풍은 바다를 건너 현재 한국에까지 이어져서 일본괴담과 요괴문화에 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대중적 관심을 일본문화와 연결시켜 많은 전문서적과 번역서, 그리고 한일 요괴문화 비교서적 등이 출판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상이다. 가히 한국과 일본 양국을 관통하는 요괴문화 전성시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일본의 괴기, 괴담과 요괴문화는 이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문화코드와 문화콘텐츠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로 그 위치를 점하는 위치에 이르게 된다. 향후에도 이러한 형태로 요괴문화는 국경을 초월하여 그 범위와 영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3. 현실공간 속의 일본인과 이계(異界)의 요괴—경계를 넘어서

인간과 이계(異界)의 존재와의 접촉은 이공간(異空間)에서만 발생, 성립하는 이야기를 말하기 보다는 현실공간으로부터 이공간으로, 이공간에서 현실공간으로 갑자기 서로 교차되어

들어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야기의 괴기성 혹은 환상성은 살아있는 자가 살아 움직이는 현실공간의 상황과 이공간의 존재가 출현하는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비단 일본뿐만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세계에는 수많은 현실공간과 이공간 사이에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 경계를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복잡하게 뒤엉키고 중층화 된 경계를 필요에 따라서, 강하게 의식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면서 생활을 영위해 왔다.

다시 말하여 이공간이라는 것은 이러한 경계 저편에서 전개되고 있는 영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미지의 이공간에 대하여 다양한 상상을 펼쳐 왔다. 어떤 자들은 경계를 뛰어 넘어 이공간으로 들어가 그곳의 체험을 전해 왔다. 또 어떤 때는 경계 저편에서 온 자들로부터 이공간의 모습을 들으려고 하였다. 그 이야기는 사실이거나 환상적인 것 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이야기로부터 이공간을 둘러싼 이야기를 상상하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나가면서 엮어나갔다. 일본인도 마찬가지로 이공간을 상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세계를 만들어 왔던 것이다. 따라서 경계를 넘나드는 현실공간과 이공간을 둘러싼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일본인들의 이공간과의 접촉을 통한 그들의 의식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⁷⁾

이류인 요괴와의 접촉은 허구화 된 현실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면 안 되고, 과거에 있던 사실을 통해 독자의 현실을 혼란시키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류인 요괴와의 만남이 진기하고 괴기스러운 이야기로서 독자의 공포심을 흔들어 놓는 이상, 환상의 이공간을 창조해, 그곳에 현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재미 혹은 이상을 요구할 때, 이러한 이야기와 독자가 공유하는 공간을 개입시킴으로써 이공간은 현실로 나아가게 된다.

일본인들은 괴담물에서 현실공간과 이공간(異空間)을 구분지어 가면서 자신들의 세계를 구축해 나가곤 하였다.⁸⁾ 경계를 뛰어 넘는 현실공간과 이공간을 둘러싼 괴담물의 흐름은 일본인들과 이공간의 이류(異類)와 교류와 접촉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류와의 교류와 접촉 이야기는 허구화 된 현실성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러한 과거에 있던 기묘한 사실들은 현실과 이공간 인식에 기반을 두면서 그것을 향유하는 독자들의 환상성과 공포심을 자극시키는 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이류와의 만남이 진기하고 괴기스러운 이야기로서 독자의 공포심을 흔들어 놓는 이상, 환상의 이공간은 만들어지고 현실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재미 혹은 이상과 염원은 괴담물과 독자가 공유하는

7) 박희영(2010) 「현실공간과 이공간의 인식과 그 의미에 관하여」 『우게쓰 모노가타리(雨月物語)』를 중심으로, 『일어일문학』 제46집, pp.241-242의 내용을 본고의 취지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8) 小松和彦(2006) 『日本人の異界観』せりか書房, pp.23-27

공간 속에서 재창조되는 것이다.⁹⁾

일본 요괴 이야기에서 인간과 이류와의 교류와 접촉에 관한 이야기는 화자가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지금의 청자를 향해 말하는 형식이 재생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독자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류와의 접촉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즉 과거에 일어난 아무리 기묘한 사건일지라도 현재의 현실공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인간과 이류인 요괴와의 교류와 접촉이 독자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전승되어져 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연속하여 존재하는 현실공간과 이공간이 창출해 내는 일본에서의 이류 교류와 접촉의 전개양상과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¹⁰⁾

따라서 이와 같은 논리 속에서 다음 장에서는 이류이자 요괴인 슈텐동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본장의 논의를 개진해 나가고자 한다.

4. 일본에서의 요괴 이야기의 궤적－요괴 슈텐동자 이야기

그러면 본장에서는 슈텐동자 이야기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일본 내에서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일본 요괴 슈텐동자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자극해 오면서 오래전부터 일본에서 큰 화제를 불러 모아왔던 존재였다. 범위를 넓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민담, 전설 등의 수많은 옛날이야기 속에서 그 형태와 이미지는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양상과 스토리 구조를 가지는 요괴, 귀신에 관한 흔적과 내용을 찾아 볼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의 경우는 일본의 요괴만큼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 미비하여 다양성의 확장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¹¹⁾

9) 小松和彦(2003)『異界と日本人』角川選書, pp.76-85

10) 박희영(2011)『일본의 이류혼인담(異類婚姻譚)의 전승과 그 의미에 관하여』『일어일문학』제50집, pp.195-196의 내용을 본고의 취지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11) 일본에서 요괴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상징화되어, 오늘날 많이 이야기되고 소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과 흐름 속에서 일본에서의 요괴문화 붐이 한국에까지 이어져 오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본 요괴가 조금씩 우리들에게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즉 이는 최근 일본문화코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서 그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는 피기, 괴담문화 열풍과 그에 수반되는 한국과 일본에서의 장르적 차원의 요괴문화 붐과 일정부분 그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박희영(2013a) 앞의 논문, 「동아시아 피기 문화 속의 요괴 전승과 그 흐름-일본 요괴, 설녀(雪女)의 문화사를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40집, pp.144-146

어쨌든 일본에서 전승되어 오고 있는 슈텐동자 이야기는 다양한 이미지와 이설(異說)의 형태로 산재되어 전개되어 왔다. 어떠한 완벽한 형태를 갖춘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진 이야기라기보다는, 슈텐동자의 기이한 형태와 모습 그의 기행(奇行), 그리고 특징 등으로 때로는 입으로 구승되면서, 때로는 기술되어 지금의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슈텐동자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흐름은 슈텐동자의 탄생과 관련된 이설이 다양한 지역에서 나오게 된 배경을 이루게 된다. 이처럼 일본에서 슈텐동자 이야기를 기록한 전본(伝本)은 많지만 그 중에서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에미키인 『오에야마에마키(大江山絵巻)』에서 그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있는데, 슈텐동자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 이루어진 최초의 문헌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먼저 슈텐동자 이야기의 보편적인 형태의 줄거리를 간직하고 있는 오토기조시(御伽草子)의 『슈텐동자(酒呑童子)』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¹²⁾

단바 지방(丹波國) 오에야마(大江山)에 사는 요괴가 장안을 드나들며 교토를 황폐화시키며 귀족들의 어여쁜 처자들을 잡아가는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한다. 때마침 이케다츄나곤(池田中納言)의 아름다운 딸이 없어지게 되었는데, 이치조 천황의 명에 의하여 점을 친 음양사는 이 일도 마찬가지로 오에야마에 살고 있는 요괴의 짓이라고 밝히게 된다. 조정에서는 미나모토노 라이코(源頼光)에게 명하여 그의 사천왕(四天王) 와타나베노 쓰나(渡辺綱), 사카타노 키타코(坂田金時), 우스이 사다미쓰(碓井貞光), 우라베노 스에타케(卜部季武),와 후지와라노 야스마사(藤原保昌)로 구성된 토벌단을 구성하게 한다. 퇴치어명에 따라 라이코 일행은 이와시미즈하치만(石清水八幡), 스미요시묘진(住吉明神), 구마노곤젠권현(熊野權現)에게 신의 가호를 구하고 길을 떠나게 된다. 오에야마에 도착한 일행은 산 속에서 신의 화신인 세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라이코일행에게 신편귀독주(神便鬼毒酒)¹³⁾와 퇴마용 투구인 호시카부토(星甲)를 선사한다. 오에야마에 사는 것은 슈텐동자라는 요괴였는데, 슈텐동자가 머물고 있는 곳은 강철로 만들어진 철벽의 요새로 ‘사천왕’이라 불리우는 네 명의 요괴가 보초를 서며 지키고 있었다. 라이코 일행은 산 속 행자승(山伏)으로 변장하여 이곳을 찾아간다. 라이코 일행을 의심한 슈텐동자는 일행을 떠보기 위하여 주연을 베풀며 사람의 피와 살을 먹여보는데, 라이코가 천연덕스럽게 이것을 먹게 되자 경계를 풀게 된다. 그러자 라이코는 지니고 있던 신편귀독주를 요괴들에게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다. 요괴들이 잠들자 라이코 일행은 먼저 납치되어온 귀족의 딸들을 구출하고 슈텐동자가 잠든 사이에 목을 자르고 그의 잔당들을 퇴치한다. 그 후 살아남은 여자들을 데리고 교토로 돌아가게 되고, 이후 교토는 요괴 무리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된다.

12) 大島建彦(1989) 『御伽草子集』 日本古典文學全集36, pp.444-474의 내용을 참고로 요약

13) 교토(京都)의 나리아이지(成相寺)에는 이 신편귀독주를 담았다고 전하는 사카토쿠리(酒德利)와 잔이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宮本幸枝・熊谷あづさ(2007) 『日本の妖怪の謎と不思議』 学習研究社, p.34

줄거리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슈텐동자는 지금의 일본 교토와 단바노쿠니(丹波國) 국경의 오에야마에 살았다 전하는 요괴의 우두머리였다. 이 이야기에 의하면, 슈텐동자의 모습은 키가 6미터를 넘고 시뻘건 머리카락 사이로 두 개의 뿔이 나있었다고 한다. 그가 거처로 삼고 있었던 오에야마(大江山)에는 용궁과 같은 저택이 서있고, 수많은 요괴들을 수하로 거느리고 있었다고 한다. 여기까지의 내용은 보편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슈텐동자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의 탄생과 성장과정에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설이 있어서 주목할 부분이 있다. 슈텐동자 이야기의 대부분은 오에야마¹⁴⁾ 전설이야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태생과 성장과 관련하여 이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치고노쿠니(越後國)의 캄바라(蒲原)군에서 태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이부키야마(伊吹山)의 산기슭에서, 전설상의 큰뱀, 야마타노오로치(八岐大蛇)가 신(神)인 스사노오노 미코토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이즈모노쿠니(出雲國)에서 오오미(近江)로 도망쳐, 그곳 토호의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슈텐동자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¹⁵⁾

전교법사(傳敎法師) 사이쵸(最澄)나 홍법대사(弘法大師) 구카이(空海)가 활약했던 헤이안 초기 에치고노쿠니에서 태어난 그는 쿠가미사(國上寺)에서 잔심부름을 하던 치고(稚兒)가 되었다. 열세 살 무렵 절세의 미소년¹⁶⁾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여성들에게 흠모를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고 그에게 구애한 여자는 모두 상사병에 걸려 죽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에 여성들로부터 받은 연애편지를 태우게 되는데, 자신의 연모의 정을 거절당했던 한 여성의 원념에 의하여 편지를 태울 때 나온 연기에 의하여 요괴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후 슈텐동자는 혼슈를 중심으로 각지의 산들을 전전한 뒤 오에산에 정착하게 됐다고 한다. 그의 요괴가 되어가는 또 다른 성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살펴보면 야마타노오로치와 인간의 딸과의 사이에 태어난 슈텐동자는 히에이잔(比叡山)에 들어와 치고로서 수행하게 되었지만, 금주를 어기고 많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모두로부터 미움받고 있었던 사이 어느 날, 마츠리 때 가장용으로

14) 오에야마에는 세 가지의 요괴퇴치전설이 전해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슈텐동자 퇴치전설이다. 오에야마가 위치한 단바지방은 오래전부터 대륙과의 교류가 많았고, 귀화인은 숙련된 금속정제기술로 부를 축적하였는데, 이에 탐욕을 낸 도읍의 사람들이 군사를 파견하여 이들을 수탈하였다고 한다. 정복자들은 이것에 대한 정당화를 위하여 다양한 요괴퇴치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전해진다. 이외에도 특이한 점으로 슈텐동자의 본거지인 오에야마는 이 단바의 오에야마 이외에도 오에야마(大枝山)라는 설도 존재한다.

15) 小松和彦(2013) 앞의 책, pp.36-37

16) 슈텐동자의 어릴 적 미소년의 모습과 관련하여 이를 통한 동자라는 이름의 정체성이 불러오는 함의에 대하여 이용미의 지적에 의하면 슈텐동자는 무시무시한 외견에 어울리지 않는 동자 단발의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요괴로서의 괴기스러움을 부각시킨다고 하며, 슈텐동자라는 이름은 사회에서 그 존재가 부정당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편입될 수 없는 요괴성의 메타포를 뜻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용미(2012) 앞의 논문, 22권, pp.646-647

췌던 요괴 가면이, 제례가 끝난 뒤에도 얼굴에 달라붙어 떼어지지 않아서 부득이 산속에 들어가 요괴로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이 외에도 일본에서 여러 가지 슈텐동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태생적으로 비범하고 그리고 성장과정에서 악의 기운이 가득 들어찬 슈텐동자가 현실세계인 인간계와 이계를 넘나들며 인간계인 현실세계를 황폐화시킨다는 설정에서 슈텐동자의 악귀로서의 요괴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일 것이다. 그리고 이인(異人)인 슈텐동자가 지켜야 할 규율을 어겼기 때문에 인간계의 무사들에게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의 구조는 이후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요괴퇴치 이야기의 전형적인 형태로 전승되게 된다. 특히 이야기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슈텐동자의 악귀적 성격이 강하게 인식되어 현재까지도 그러한 슈텐동자는 일반적으로 그의 태생과 성장과정의 불후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악귀 요괴로서 일본에서 정착되어 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유로 일본에서 슈텐동자 이야기가 전승되어 감에 따라 슈텐동자의 이미지는 내적인 다양한 과정과 흐름과는 상관없이 악귀로서의 일관된 모습이 고착되어 정착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게 됨을 다양한 사례들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

5. 나가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에서 요괴 이야기는 요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요괴는 인간과의 교류와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감을 나타내게 되었고 그들의 영역을 구축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간들의 상상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지대한 공헌한 했던 요괴는 더 이상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대상이 아닌 존재가 된 것이다.

환상과 상상의 틀을 벗어나 현실공간과 이계와의 경계선을 넘어서 성큼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괴들은 그들만의 자생적인 확장력으로 인하여 현재 일본문화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활성화 된 요괴문화 붐으로 인하여,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즐겨보는 문학작품,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연극에서 그리고 각종 캐릭터 상품과 그로 인한 광고에 이르기까지 많은 내용물들이 요괴문화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대량으로 생산, 소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일본의 요괴문화 붐이 가져온 산업적 파급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할 수 있는데,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판타지 영화, 관광, 그리고 키홀더나 머그컵 등의 소품에서 수백 종의 요괴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본문화 콘텐츠

속에서 요괴문화의 자취와 그 흔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요괴가 창출해낸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문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요괴문화는 지속적인 요괴열풍으로 인하여 지나칠 정도로 무분별하게 소비되어 언젠가는 고갈될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일본의 요괴문화 속에서 요괴들과 그들의 이미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의 한계성을 명확히 포착하여 애써 정착되어온 요괴문화의 커다란 틀과 흐름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향후에 전개되어 나갈 일본에서의 요괴, 요괴 이야기들을 예상해보는 것도 지금의 시점에서 해결하고 고민해나가야 할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參考文獻】

- 고마쓰 가즈히코(저) 박전열(역)(2009)『일본의 요괴학 연구』민속원
 구사노 타쿠미(저), 송현아(역)(2001)『환상동물사전』들녘, p.165
 동의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 편(2013)『동아시아 교류와 문화변용』박문사, pp.83-85
 중앙대학교 한일문화연구원 편(2005)『일본의 요괴문화』한누리미디어, pp.304-305
 박희영(2010)「현실공간과 이공간의 인식과 그 의미에 관하여」『우게쓰 모노가타리(雨月物語)』를 중심으로-『일어일문학』제46집, pp.241-242
 _____(2011)「일본의 이류혼인담(異類婚姻談)의 전승과 그 의미에 관하여」『일어일문학』제50집, pp.195-196
 _____(2013a)「동아시아 괴기 문화 속의 요괴 전승과 그 흐름-일본 요괴, 설녀(雪女)의 문화사를 중심으로-」『일본근대학연구』제40집, pp.144-146
 _____(2013b)「일본 요괴문화 속 여성 요괴의 생성과 이중성의 구조-설녀(雪女), 우부메(産女), 야만바(山姥)-」『일본근대학연구』제42집, p.296
 이용미(2012)「『슈텐동자(酒呑童子)』의 시원에 관한 소고-오토기조시『伊吹童子』, 『酒呑童子』를 중심으로-」『일본언어문화』22권, pp.634-635
 大島建彦(1989)『御伽草子集』日本古典文學全集36, pp.444-474
 乾克己編(1986)『日本伝奇伝説大辞典』角川書店, pp.455-456
 小松和彦(2006)『日本人の異界観』せりか書房, pp.23-27
 _____(2007)『妖怪文化入門』せりか書房, pp.245-247
 _____(2003)『異界と日本人』角川選書, pp.76-85
 _____(2012)『異人論』筑摩書房
 _____(2013)『日本妖怪異聞録』講談社, pp.12-13
 宮本幸枝・熊谷あづさ(2007)『日本の妖怪の謎と不思議』学習研究社, p.34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要旨〉

일본 요괴문화 속의 요괴 이야기의 궤적과 그 의미

- 슈텐동자(酒呑童子) 이야기를 통하여 -

일본에서 요괴 이야기는 요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요괴는 인간과의 교류와 접촉을 통하여 그들의 존재감을 나타내게 되었고 그들의 영역을 구축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를 통하여 인간들의 상상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지대한 공헌한 했던 요괴는 더 이상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대상이 아닌 존재가 된 것이다. 환상과 상상의 틀을 벗어나 현실공간과 이계와의 경계선을 넘어서 성큼 우리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요괴들은 그들만의 자생적인 확장력으로 인하여 현재 일본문화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문화코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일본의 요괴문화현상의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현대 일본대중문화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봄이나 열풍정도의 의미해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요괴문화의 기층과 그 근저에 흐르는 일본의 전통적인 요괴문화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다양한 각도에서의 해석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Trajectory of Japanese ghost stories and the Meaning in the the Japanese Yokai Culture

- Focusing on the economy Syutenndouzi -

Only in Japan, the story of the ghost was not a ghost story . Human contact and interaction with the ghost through them and indicate their presence in the area that was to be built out . Through this world of human imagination had to implement a significant contribution only in the presence of a ghost story that is no longer subject to the non- existence will. Outside the framework of fantasy and imagination, and the boundaries of reality beyond space and Otherworldly be coming up in front of us . This monster have their own indigenous culture in Japan now due to essential to create significant flow going . Thus, Japan has established itself as the cultural codes of the ghost in Japan in order to understand the inner surface of a cultural phenomenon of modern Japanese popular culture simply passing in a frenzy about the meaning or interpretation of the boom, rather than stay , a ghost of the substrate and its culture flows underlying the traditional Japanese ghost culture from different angles for a more in-depth analysis is required of you will be called at the time.